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김 인 숙*

- I. 머리말
- II.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
- III. 가족복지 접근의 필요성
- IV.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를 위한 가족복지 접근의 모색
- V. 맺음말

I. 머리말

현대 산업사회의 가족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인 보호망의 상실,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야기되는 가족원의 상실 그리고 가족가치의 약화로 인한 이혼과 별거의 증가가 오늘날 현대 가족이 처한 위험을 드러내 준다. 현대가족이 처한 이러한 위험은 개인적 위험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회적 위험 *social risk*이다.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갖은 구조적 속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발

생의 가능성이 모든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와같은 현대가족이 처한 위험에 가장 취약한 가족집단이 모자가족(母子家族) *fatherless family*이다. 이들은 주된 부양자인 부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박탈과 부역할의 상실로 인한 정서적 박탈이라는 양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자가족 중에서도 빈곤한 모자가족은 이러한 위험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이 노출된 가족집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를 요하는 빈곤모자가족은 75%가 부의 병사나 사고사로 인한 사별에 기인하며, 이혼이나 별거, 유기로 인한 경우는 13.4%에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보호 모자가족의 수는 1989년 현재 75,889가구이고, 자녀수는 161,727명에 이른다(보건사회부, 1990).

부의 부재는 빈곤한 모자가족의 모와 그 자녀의 삶에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모의 경우 가난과 남편의 부재로 인한 역할의 과중 부담은 물론 주변으로 부터의 고립과 소외로 인해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곤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곤경에 적응하지 못하므로서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와 자녀가 경험하는 곤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가족의 전반적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는 부의 부재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라는 가족환경의 변화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자녀문제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자녀 단독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고, 이들 삶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 환경인 가족을 염두에 두고 해결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글은 바로 이러한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를 고찰해 보고,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가족복지적 접근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자녀문제를 자녀라는 개별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복지라는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II.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

일반적으로 모자가족¹⁾이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자녀로만 구성된 구조적 결손가족을 말한다.

- 1) 모자복지법(제4조 1항 참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사실상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여성 등이 실질적으로 세대주인 가정을 의미한다. 모자가정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구조적 결손 뿐만이 아니라 기능적 결손까지를 포함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2) 기능적 측면(이는 다시 정서적 안정의 상실과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자녀의 동일시 대상의 상실로 인한 문제로 분류됨), 서비스 측면, 재정적 측면의 3개 문제로 분류하거나(장인협, 1985:172-176; 김인숙, 1984), 생활상의 문제(이는 다시 경제적 생산활동의 문제, 가족성원의 보호문제, 자녀의 양육활동 문제, 사회접촉 활동으로 분류함)와 지원체제상의 2개 문제로 분류하기도 하며(유수현, 1991:58-59), 그리고 경제적 문제, 취업문제, 주택문제, 자녀교육 및 양육문제, 정서적 문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송성자, 성규탁, 1986:13).

그리고 빈곤모자가족은 이러한 모자가족중 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가난한 모자가족을 가리킨다. 이들 모자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장인협, 1985; 김인숙, 1984; 유수현, 1991; 송성자, 성규탁, 1986).²⁾ 그러나 자녀문제는 이들 연구자가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이다. 특히,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모자여름학교에 참가한 모자가정의 모델이 지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경제문제, 자녀의 정서적 문제, 자녀의 성격문제, 자녀의 학교성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의 진학문제 순으로 나타나(한국여성개발원, 1984: 190) 자녀문제가 이들 모자가정 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근심거리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자녀문제가 이들 가족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는 크게 부역할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응상의 문제와, 이들 가족이 가진 만성적,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가족환경상의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사회적응상의 문제

모자가족 자녀가 갖는 사회적응상의 문제는 부라는 역할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부적응 상태 및 행동에 그 초점이 있다. 특히, 빈곤한 모자가족의 자녀는 다른 어느 계층의 모자가족보다 부의 역할부재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

는다(최경순, 1979; 김경중, 1982). 부역할의 부재가 모자가족의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T. Parsons는 가족내에서 남자(아버지)는 경제적 수입과 사회에 대한 대외적 관계를 수행하는 도구적 역할 *instrumental role*을, 여자(어머니)는 가족내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융합을 도모하는 대내적 역할을 수행하는 표현적 역할 *expressive role*을 한다고 보았다(이효재, 1983: 314-315). 부부재(父不在)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설명중의 하나는, 가족내에서의 부의 부재가 이와같은 수단적, 도구적 역할의 손실을 가져와 이것이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내 부부재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정신분석학에서 강조하는 동일시 *identification*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발달단계에서 얻어진 동일시의 누적에 상당히 영향받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중 부의 부재는 부에 대한 동일시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모자가족의 자녀에게 다양한 사회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부라는 동일시 대상을 상실한 남자자녀의 경우는 남성다움을 배울 기회가 적어 여성적, 복종적, 의존적, 공격적이 되거나(김경중, 1982: 12), 초자아 발달에 장애를 가져와 비행 및 범죄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최선애, 1984: 22). 여자자녀의 경우도 부의 상실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형성에 장애를 주며 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에 대한 태도와 의존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각 개인은 보상받게 되는 행동을 학습하며 주변의 다양한 역할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녀의 사회화는 남편과 부인간에 만성적인 갈등이 있는 가

정보다 오히려 부를 상실한 가정이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된다고 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48-149).

이처럼 부의 상실이 모자가족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하나의 견해는 없다. 다시말해, 부의 상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부의 존재가 자녀들의 행동과 사회적 적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에 있어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자가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가정으로서의 기능과 구조를 갖춘 정상가정과 비교해 볼 때, 모자가정의 자녀는 정상가정의 자녀보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모자가정의 자녀가 보이는 사회적응상의 문제는 크게 정서적 측면, 도덕적 측면, 학업성취 측면, 탈선 혹은 비행 측면의 4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의 부재는 모자가족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부가 결손되었을 경우 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과 사회적 통념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 그리고 가족내 역할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적 경험의 결과 모자가족의 자녀는 정상가족의 자녀보다 정신신경증이나 우울, 정신분열증, 자살 등과 같은 정신적 결손의 가능성을 더 많이 안고 있다(이영호, 1975; 최선애, 1984). 이들은 또한 대인관계에서 억압적이고 회피적이고, 충동적이며, 권위의식에 대한 반항(父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컸으므로)과 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더 강하다(Douvan & Adelson,; 최선애, 1984).

부의 부재는 또한 모자가족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즉, 모자가족의 자녀는 부의

통제적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데다 모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에 무관심해 짐으로써 도덕관념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 부재한 가정의 자녀는 원리원칙적인 도덕적 이유의 사용이 적고, 자아발달의 수준이 낮으며, 도덕적 발달수준이 정상가정의 자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Daum, 1983; 김영희, 1986).

부의 결손은 또한 모자가족 자녀의 학업성취와 지적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Landy, Rosenberg & Sutton-Smith, 1969).³⁾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모의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인해 소홀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모자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내적인 제반 요인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가족 자녀의 문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행동화되는 경우는 자녀가 탈선 혹은 비행에 빠져들 때이다.⁴⁾ 모자가족의 자녀는 정상가족의 자녀보다 탈선이나 비행을 행동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는 부부재로 인한 부모 역할의 질적, 양적 부족과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45).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해서는 부부재 가정보다 가족원간의 응집력이 결여된 가정에서 소년비행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김경중, 1982: 17), 이는 모자가정 그 자체가 비행이나 탈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자녀의 욕구 불만, 심리적 고독감, 애정결여 등이 자녀의 행동

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45).

이상에서 언급한 모자가족 자녀가 보이는 사회적응상의 제반 문제는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계층적 요인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빈곤한 하층계급의 부친부재 자녀는 다른 계급의 자녀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하여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제반 특성이 비행이나 탈선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김경중, 1982: 39). 중류계층이나 그 이상의 계층의 경우 비록 부가 부재하더라도 빈곤한 하층계급의 모자가정 자녀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2. 가족환경상의 문제

빈곤모자가족 자녀의 가족환경상의 문제란 이들 자녀가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상태나 행동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상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가족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가족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한다. 빈곤모자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상의 문제는 부역할의 부재라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 가족이 처한 낮은 소득, 낮은 사회직 지위, 모의 좌절감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가족환경상의 문제는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의 원인적 동인(動因)

3) 한국여성개발원(198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를 상실한 후 자녀의 성적이 좋아졌다는 경우보다는 더 나빠졌다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학업 성적이 나빠진 이유로 '모가 잘 보살피 주지 못해서'와 '공부에 전념할 환경이 못되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40-144).

4) 빈곤모자가족의 탈선비율은 백경희(1988)의 연구에서 13.9%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6년 전국불량행위소년 비율인 10.2%,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편부모가족 자녀 탈선 비율 6.4% 보다 높은 것이다(백경희, 1988: 35).

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이들 자녀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수인 셈이다.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는 부의 역할상실로 인한 문제외에 빈곤이라고 하는 보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조건속에 있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Toby에 의하면,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지적상태를 낳고 낮은 지적상태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낳으며,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거칠고 자극적인 행동을 가져와 결국 비행청소년을 낳는다고 보았다(이규환, 1978: 35).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은 직업에서 자녀의 탈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48-149). 빈곤모자가족의 경우는 생계를 위해 모가 하루종일 일터에 나가 있게 되어 항상 집은 비어있고 산만하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열등감이 고조되고 비행화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쪽 부모가 없다는 사실도 사실이러니와 빈곤상태와 같은 낮은 소득이 빈곤모자가족 자녀의 가치, 열등감, 자아개념, 정서적 안정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자가족이 처한 빈곤상황은 자녀의 사회적응상의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 이 양자가 상호작용하여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빈곤상황 이외에 빈곤모자가족 자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환경은 모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상태이다. 빈곤모자가족의 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함은 물론 가사역할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런 상태

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의 지속이 이들 모의 성격을 신경질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 비행이나 성격적, 정서적 결손과 같은 자녀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모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상태는 대단히 중요하다(최선애, 1984: 15)

빈곤모자가족의 모가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은⁵⁾ 남편과의 이별, 빈곤, 가계책임자로서의 부담, 자녀에 대한 의무감 등 혼자서 감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모의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부담은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가족의 결속력을 붕괴시키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예로 모자가족 모의 우울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탈선행동의 비율이 높았는데(한국여성개발원, 1984: 149), 이 역시 모자가족 모의 정서적 상태가 그들 자녀의 탈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제가 자녀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제의 기간동안 모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부부제시 모가 곤란에 잘 견디어 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함 없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소화시킨다면 자녀도 협력적, 애정적이 될 뿐더러 자제력도 갖출 수 있게되어(장병림, 1984), 사회적응상의 제반 자녀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부제의 영향은 모의 인성이나 양육태도를 통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겠다. 모의 성격 자체가 건강하여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

5)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한국여성개발원(1988)의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가족의 모는 '자주 화가 난다'가 응답자의 40.6%, '가끔 화가 난다'가 46.6%였고, '거의 그렇지 않다'는 13.4%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적인 화병의 증세로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지러우며 골이 아프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며 앞이 캄캄해지거나,' '속에서 무엇이 치밀어 올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두근거리고 뛰며 빙빙 도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남덕자, 1975: 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에는 외양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 부적응적 정서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빈곤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모의 정서적 불안정 등과 같은 가족의 결속력 결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쪽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의 사회적응상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이들 가족의 낮은 소득과 모의 정서상태가 자녀문제를 낳을 것이라는(한국여성개발원, 1984: 21)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자녀 개인의 부적응적 정서 및 행동은 이들이 처한 가족환경적 문제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빈곤모자가족 자녀 문제는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Ⅲ. 가족복지 접근의 필요성

사회복지에 있어 가족지향적 원조 즉, 가족복지라는 관점은 그 어떤 관점 보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복지'에 대한 정의나 관점은 체계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여러 다양한 대상층—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복지에 대한 기존의 여러 정의들을 고려해보건데, 가족복지는 '전체로서의 가족 *family as a whole*'과 '가족생활의 보호와 강화'에 초점을 두는 가족전체를 지향하는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전준우, 1988: 45-47; NASW, 1965: 309). 즉, 가족복지 접근이란 가족원 개인을 원

조하는데 있어 그 개인을 개별적,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연계하에 그 문제의 가족적 원인 및 그 문제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족생활의 보호와 강화를 강조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실직한 가장을 원조하는 경우, 가장의 실직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어 직업알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 전체의 생활상황이나 가족안에서의 가장의 지위나 감정, 가족전체의 인간관계를 배려하여 자녀의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가족복지 접근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1)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는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교육 및 의료기회의 박탈을 포함하는 환경적 문제와 2)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족성원 역할의 불이행, 갈등을 포함하는 가족관계상의 문제 3)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족원의 적응능력, 인성, 행동상의 장애를 포함하는 가족성원의 내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김성천, 1990: 299).

그리고 앞의 가족복지 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복지의 실천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가족사회사업 *family social work*과 정책적 차원의 가족정책 *family policy*으로 구분 가능하다. 가족정책이 주로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라면, 가족사회사업은 가족관계 및 가족성원의 내적문제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사회사업은 가족생활을 보호, 강화하고 가족원의 사회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ing*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활동(NASW, 1965: 309)으로서, 가족치료나 가족상담, 가정생활교육, 가사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가족원간의 관계문제나 특정 가족

원의 부적응 문제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가족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들'(최성재, 1992: 197)로서, 주로 아동과 여성에 관한 정책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아동이나 여성에 관한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가족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이나 여성을 가족의 일원으로 다루고 그 가족에 영향받는 존재로 다루면서 해결을 위한 개입을 그러한 시각에서 시도할 때 가족정책이 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주로 가족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의 재정급여와 노령, 질병, 폐질, 실업자들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을 통해 실시된다.

가족사회사업과 가족정책을 포함하는 이와같은 가족복지적 시각이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를 접근할 때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 자녀문제의 발생 및 순환에 가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빈곤모자가족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적 문제를 개인적, 개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해도, 그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 터전인 가족의 변화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들 가족의 자녀문제는 다시 재발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가족의 상황이 자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염두에 둔 가족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들 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정책이 가능한가? 다음에는 이들 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의 실태와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IV.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를 위한 가족복지 접근의 모색

무릇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은 그 문제의 진상이 무엇이며, 그 진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문제의 객관적 진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문제를 개인적 결함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결함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빈곤한 모자가족의 자녀문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가족으로 보고,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통해 자녀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복지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복지 접근의 기본 골격은 가족정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범주와 가족사회사업으로 분류되는 대인적 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Kammerman과 Kahn에 의하면 독립적이고 의도적인 가족정책이 없는 나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실 즉, 가족이라는 분야를 단지 우연이나 재난에 맡겨놓은 셈이며, 그 결과는 무질서하고 때로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Kammerman & Kahn, 1976: 183). 이는 가족과 관련한 대인적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빈곤모자가족 자녀들이 처한 곤경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가족에 대한 제도적, 실천적, 기술적 원조망의 결여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우연이나 그 가족에게만 맡겨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빈

곤모자가족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의 실태는 이러한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를 위한 가족정책에 해당되는 공적부조제도로는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하의 생활보호와 모자복지급여, 주택 우선공급, 자녀 생활지도상담 및 교육 지원, 자녀학비 지원, 고용촉진, 모자보호시설 입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생활보호나 모자복지급여, 주택 우선공급, 모자보호시설 입소 등이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를 위한 가족정책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적절한 경제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부모 혹은 가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생활보호와 모자복지급여는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하에서 각각 빈곤가정과 빈곤모자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그리고 이들 가족원에 대한 의료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정이 빈곤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하기 위한 제도이다.⁶⁾ 그러나 이들 급여는 빈곤모자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서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모자가족이 처한 빈곤상황은 계속 자녀의 학업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이들 가족의 자녀문제의 심각화를 불러올 수 있다.

주택우선공급과 모자보호시설 입소는 빈곤모자가정에 영구임대주택(혹은 시설)을 우선 공급토록함으로써, 빈곤화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인 주거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촉진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

설치를 모자가정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이 역시 직업획득을 통한 빈곤화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일부의 모자가정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적부조 체계내에서 빈곤모자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자녀 생활지도상담 및 교육지원과 교육비(6세 이하의 경우 양육비⁷⁾)의 지급밖에 없다. 그런데 자녀 생활지도상담은 시·도 재정 또는 지역내의 유지, 독지가를 통한 장학금 지급을, 교육지원은 자원봉사자에 의한 자녀학습지도의 의미하고 있어(보건사회부, 1994: 25) 역시 서비스의 적절성과 충분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지원은 주로 자녀의 학비(혹은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되, 그 수준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며, 자원봉사자에 의한 자녀학습지도의 강화 또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자가정 자녀들이 나타내 보이는 사회적응상의 제반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확산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녀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견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모자가정 혹은 그 모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보호의 수준과 종류에 있어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의 환경적 요인은 그 가족이 처한 빈곤이라

6) 모자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모자가정생활등급 7등 이하로서(보건사회부, 1994: 28),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기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세대가 모자복지급여를 받을수 없게한 이유는, 복지급여의 내용중 중학생과 실업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이 생활보호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7) 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일 분유 80g을(400원) 지원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 35-37).

고 하는 상황과 모의 정신적 건강이었다. 가족정책은 주로 가족의 빈곤 즉,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그 가족의 상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몇가지 점에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적부조체계내에 자산조사에 근거한 빈곤모자가족과 그 자녀를 위한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을 비롯하여 구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한국여성개발원, 1990), 아동(자녀)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의 대표적인 제도로 언급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제도에 의한 급여수준은 모자가족의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만큼 충분할 정도로 주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가족이 빈곤상황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택의 마련이다. 1988년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빈곤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들에게 있어 안정된 주택의 마련은 곧 경제적 문제의 반이상을 해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현재 중단상태인 영구임대아파트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 이를 이들 가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집단거주 방식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주방식과 분산정책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배치를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이다. 아니면, 주택수당을 제공하던가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주거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되어 빈곤으로 인한 이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또 한가지 고려할 것은 취

업가능한 모자가족의 자녀를 직업훈련시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1988: 83-84)의 조사에 의하면, 빈곤모자가정의 모가 자녀의 직업훈련에 반대하는 이유로서 학교교육을 시키기 위해(79.2%), 생활비를 벌어야 하므로(8.8%), 직업훈련을 배우게 할 여유가 없어서(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 보다는 현재의 주어진 경제적 여건이 직업훈련을 시킬만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직업훈련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모자가정의 자녀중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받을 동안 직업훈련비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당이나 급여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자가정 및 자녀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자녀문제를 방지하려는 가족정책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인간 접촉을 통해 이들 자녀문제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대인적 서비스로는 상담활동, 재가서비스, 학습지도, 위기보호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은 청소년상담실, 모자복지상담소, 사회복지관내 상담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실의 경우 시·도에 9개의 상담실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들 가족의 청소년이 청소년상담실 이용율이 저조하고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연계하에 충분한 서비스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163). 모자복지상담소는 법에 명시만 되어 있을 뿐 별도의 조직은 없고, 실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녀복지상담소에서 모자복지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자가정의 모나 자녀가 부녀복지상담소를 찾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모자가정의 자녀

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상담활동이 그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관(혹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이다. 이곳에서는 빈곤한 모자가정의 자녀와 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적응과 관련한 문제, 학습문제, 가족내에서의 갈등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母的 경우에는 주로 취업이나 부업과 관련한 상담이나 법률상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⁸⁾

재가서비스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나 간병,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빈곤모자가정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이다. 빈곤한 모자가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단순한 가사서비스가 주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자가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단순한 가사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을 양육,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하는 전문적인 홈메이커home-maker의 육성과 개발이 필요하다.

위기보호 서비스는 주로 학대받는 아동과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긴급 일시보호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YMCA, 봉천동 나눔의 집) ‘청소년 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빈곤가족 자녀들에 대한 학습지도와 공부방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결국,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에 대한 대인적 서비스는 모나 자녀를 대상으로한 상담활동이 주가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체계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담의 방법 또한 가족적 유대와 이를 통한 자녀문제의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중심적 상담이

나 치료보다는 개별적 차원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복지적 접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인 서비스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민간 및 공공차원의 복지기관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녀들의 생활의 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상담실을 통해 포착된 빈곤모자가족 자녀의 개인적, 가족적 문제를 그 가족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둘째, 빈곤모자가족의 남자자녀가 학령기나 사춘기일 경우, 부의 역할을 도방하고 동일시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의형제를 맺을 수 있게하여 모자가족 자녀에게 조언과 지도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 효과를 갖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여자아이로서 학령기나 사춘기에 있을 때는 남성과의 교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학생들과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든가, 이성교제나 자아정립에 관한 강좌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처럼 좋은 지도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여대생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한다. 물론 의형제를 맺는(Big Brother & Sister)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복지기관에서 일정기간의 훈련을 받아야 이들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게한다.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여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제도를 보완하여 개별적인 상

8) 서울시내 9개 복지관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것임.

담뿐만 아니라,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그리고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적 대인관계의 향상과 사회적 역할수행의 강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의 진작에 관한 사회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들 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한 강좌를 실시하도록 한다(예를 들면,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 및 학습문제에 관한 강연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부정적이지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강연). 그리고 가족결속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의 '모자자연교실'⁹⁾이나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모자여름학교' 등과 같은 정기적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모와 자녀의 공동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의 구심력을 확립함으로써 자녀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회복지관내의 가사서비스 home-maker services를 활성화하여 빈곤모자가정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빈곤모자가족의 경우, 대부분의 모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갖고 있어 가사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수 있으므로 가사서비스를 통해 이를 지원토록 한다.

다섯째, 빈곤모자가정의 모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문제에 둘러 쌓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갈등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자세대로 이루어진 자조집단을 형성토록 한다. 동질적인 자조집단 안에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갖게되고 상호정보를 제공, 교환함으로써, 모자가정의 문제로 인한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 자신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 상담기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모자복지법 제 7조에 명시된 '모자복지상담소'의 역할을 내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이들 자녀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환경적 요인 특히, 가정의 경제적 환경과 모의 정서적 안정 등의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임상적 차원의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모자가족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 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접근경로를 한국여성개발원이 제시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서비스체계 및 접근경로 모형(한국여성개발원, 1988)을 참조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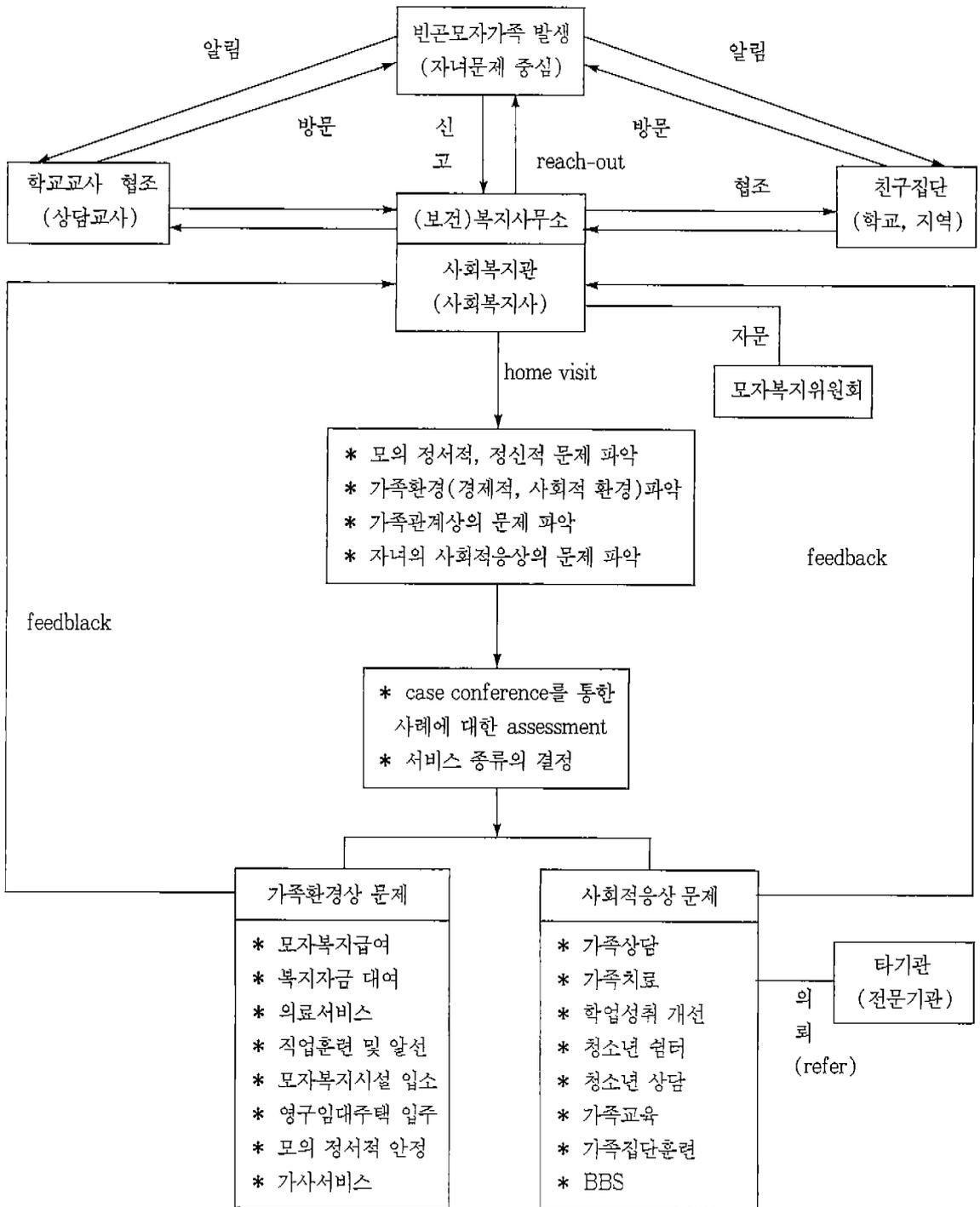
V. 맺음말

빈곤한 모자가족의 자녀는 빈곤이라고 하는 조건과 부의 부재라고하는 치명적 조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위축은 물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성격적 불안정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 집단보다도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쳐 성장하는데 취약하다. 그 결과 다양한 정서적, 성격적 장애와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의 해결은 해당 가족이나 개인적 차원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호를 요하는 빈곤모

9) 일본의 미쓰비시 기업체가 자체 기금으로 일본 모자가정의 자녀와 모를 대상으로 자연환경속에서 3박 4일 정도의 합숙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이를 지칭함.

〈그림1〉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접근경로



자가족의 자녀수가 상당수에 이를뿐 아니라, 모자 가정의 발생이 개인의 잘못에 기인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구조적 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개별 가족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후일 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 자녀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응상의 문제와 가족환경상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환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교육기회의 박탈,父의 부재로 인한 母와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 그리고 이들 제반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모자가족 자녀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별적 접근이 아닌,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고려한 가족 지향적 가족복지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록 자녀를 돕는 것이지만 자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환경 변화와 가족원간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자녀를 원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자복지법내에 규정된 '모자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여기서 이들 자녀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복지기관에서도 이들 문제의 심각성과 가족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이를 위한 실천적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유명무실한 '모자복지상담소'를 센터로 하여 빈곤모자가족 자녀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좋은 경제적, 정서적 환경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양분이다. 성장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의 상황 때문에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면, 사회는 그 청소년과 가족에 대해 이들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는 더 악화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중. 1982. 「부친부재와 자녀의 인성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천. 1990. 「한국가족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논문집(인문사회계열), 24-1.
- 김인숙. 1984. 「요보호모자가족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덕자. 1975. 「어머니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족성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희. 1988. 「빈곤모자가족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부. 1990. 「'89 모자가정 실태보고」, 보건사회부.
- 보건사회부. 1994. 1994년도 「부녀복지 사업지침」, 보건사회부.
- 송성자, 성규탁. 1986. 「빈곤가족과 사회사업-프로그램 방향 구상」, 사회복지
- 유수현. 1991. 「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 기독교사회복지 창간호.
- 이규환. 1978. 「교육사회학」 배영사.
- 이효재. 1983.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장병림. 1984. 「아동심리학」 범문사.
- 장인협. 1985. 「사회복지개론」 한국사회개발연구원.
- 전준우(편).1988. 「가족복지론」, 홍익출판사.
- 최경순. 1979. 「부친부재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애. 1984. 「부친부재가 자녀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최성재. 1992. 「가족과 사회정책(가족정책)」, 가족학논집 제 4집, 한국가족학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9. 「사회복지법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여성개발원. 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1933.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Daum,J.M. 1983. "Father's Absence and Moral Development of Male Delinquents", *Psychological Reports* 53(1).
- Kammerman,S.B & Kahn,A.J. 1976. "Explorations in Family Policy", *Social Work* 21.
- Landy,F,Rosenberg,B.G & Sutton-Smith,B. 1969. "The Effects of Limited Father Absence on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0(4).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1965. *Encyclopedia of Social Work*.